

**[기획연재 1] 구속사와 선교**  
**구속사적으로 본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선교**

김해리 권사 / 1994

구속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속량해 주는 인간 생명 자체의 구원 행위이다. 구속사란 이러한 구원을 성취해 가는 역사적 진행과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역사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구속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해 보자.

화란의 보수 신학자인 스킬더 (K. Schilder)는 성경은 일련의 교회를 위한 단편이 아니라 일맥상통한 전진사이며, 복음은 예수 안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점진적 구원역사이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인 동시에 항상 결과를 겨냥한 목적적 사실이기 때문에 직선적이라도 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낙원과 타락의 역사성, 성경의 통일성과 고원사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쿨만 (O. Cuilman)은 구속사를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들의 형태로써 역사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점진적인 재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로 부터 종말에 이르는 역사 전체의 통괄을 제공하는 일련의 케류그마적 계시사건들의 역사를 가르킨다고 주장하였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석원태 박사는 구속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주권적 의지와 계획을 따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의 백성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실 일을 계시 (성경) 하시고 교회운동을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역사적 진행과정을 뜻함이다. 구속사란 구원 (Salvation)과 역사 (History)의 복합이다. 그러므로 구속사란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역사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상의 제 견해들을 정리해 본다면 구속사는

1. 세속 역사와 구분할 수 없는 창조로 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하나님 주도의 재역사이며
2.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주도의 일관된 사역으로써
3. 모든 시대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 주도의 역사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